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 고지혈증 편 -

1 고지혈증이란?

고지혈증이란 혈액 중에 지방 성분인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고지혈증이 지속될 경우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뇌졸중,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의 심혈관계 질환으로 악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2 고지혈증 치료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고지혈증은 잘못된 식사,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식사조절 및 운동**이 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식사조절 및 운동에도 불구하고 고지혈증이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 약물 투여를 고려하게 됩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고지혈증 치료제로는 일차적으로 선택되는 **스타틴**을 비롯하여 **에제티미브, 피브린산 유도체, 담즙산결합수지**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스타틴으로 치료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생물의약품인 **PCSK9 억제제(프랄런트, 레파타)**가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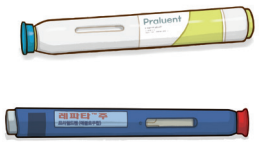
화학의약품

스타틴
에제티미브
피브린산 유도체
담즙산결합수지



생물의약품

PCSK9 억제제



3 가정에서 투여할 수 있는 주사제가 있나요?

PCSK9 억제제는 제품에 따라 2주~1개월에 한번씩 복부, 허벅지 또는 팔(상완)의 피하에 투여하는 주사제입니다. 환자가 피하 투여 방법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은 경우 가정에서 스스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4 어떤 자가투여 주사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

▶ **'프랄런트'와 '레파타'는 대상 질환, 투여 용량이 서로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환자 상태에 적합한 제품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 **자가투여 주사제로서 '프랄런트'는 프리필드 펜, '레파타'는 프리필드 펜 및 프리필드 주사제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 고지혈증 편 -

5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

❶ 의료전문가에게 자가투여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제품별 환자용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용 순서와 투여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❷ 처방받은 주사제는 냉장보관 하여야 하며 얼려서는 안됩니다. 투여하기 전에 냉장고에서 꺼내 상온에 가까워지면 즉시 투여하여야 합니다.

❸ '프랄런트'와 '레파타'는 한번에 한하여 냉장고에서 꺼내 차광을 유지한 상태로 상온(25°C 미만)에서 최대 30일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즉, 냉장고에서 꺼낸 제품은 30일 이내에 사용하거나, 사용 후 버려야 하며 다시 냉장보관하면 안됩니다.

6 이상사례(또는 부작용)가 의심되는 경우는?

▶ 사용하기 전에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기 전에 고지혈증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이 잘못된 식사 및 생활습관이 아닌 다른 질병(예; 신증후군, 갑상선기능저하증)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이상사례(부작용)

주사부위가 붉어지거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호흡기 감염, 가려움증, 요통, 관절통, 인플루엔자 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 이상사례 발생 또는 의심 시

이상사례(부작용)에 대한 의학적 조언은 의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이상사례(또는 부작용)가 의심되는 경우, 환자와 의사 또는 약사는 그 내용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의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KAERS)을 통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